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조주희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연구교수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획일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조 주 희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연구교수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아프리카 교육을 연구하는 70세 정도 되신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러 가게 되었다. 발표자를 소개하는 팸플릿에 노란 버스가 S 자로 그려진 시골길을 달리는 그림이 배경으로 있었다. 그분이 고향에서 아주 오랫동안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하셨다는 설명이 있었다. 당시에 먼지로 뒤덮인 길을 오랫동안 다니셔서 눈을 다치게 되었고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눈이 안 보이신다고 했다.”¹⁾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 주었던 친구는 팸플릿에 적힌 교수님의 소개가 농담이거나 조금은 과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친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런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

1) 조주희, 박문석. (2020). 건강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병(病)을 가진 사람의 장애 경험 탐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3(3), 147.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개 실패할 것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하는 장애인의 모습은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나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악한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은 그의 저서 <스티그마: 손상된 정체성의 관리에 대한 소고>에서 ‘신체적으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전과자, 민족적·인종적 소수자, 정신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된 위치를 점하게 된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낙인이 찍히게 된 개인은 그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 사람에게 투사되는 다양한 은유적 형태의 모욕적인 언어를 포함한 차별과 배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경멸을 쏟아부을 때 쓰는 ‘병신(病身) 같다’는 말에서 ‘병신’은 ‘불구’와 같은 용어로 신체에 손상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다. 그런데 요즘 상대방을 모욕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병신’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 사용했던 용어일까? 아니다.

장애의 사회적 구성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대개 역사적·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각 사회 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조선 시대 때 ‘병신’이라는 말은 몸에 병(病)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 신체에 손상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또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장애인(the disabled)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역사를 탐구한 정창권은 과거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존재했지만 사회가 이들에게 투사하는 모습이 현재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며 보여 준다.²⁾

2) 정창권. (2011).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파주: 글항아리 출판사.

조선 후기 풍속 화가인 김준근이 그린 ‘병신’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다채롭게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료는 근대 이전에 몸에 병을 가진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더 자유로웠다는 사회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이 여러 사료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김준근, <병신>, 조선말기
출처: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피터르 브뤼헬, <절름발이 The Cripples>, 1568

출처: 루브르 박물관



피터르 브뤼헬, <맹인의 우화 The Blind Leading the Blind>, 1568

출처: 나폴리 카포디몬테(Capodimonte) 국립 박물관

16세기에 북유럽에서 활동했던 피터르 브뤼헬(Pieter Bruegel)은 자연과 농민의 생활을 풍속화의 형태로 그려 낸 화가였다. 1568년 벨기에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그의 그림을 통해 당시에 걷지 못하거나 다리가 없는 사람은 절름발이(the crippled)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the blind)이었지, 지금과 같이 장애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

근대 자본주의와 장애⁴⁾

장애는 당시의 사회적 구조와 관행에 의해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활동의 제한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 18세기 말 산업의 발달은 모든 노동자에게 장시간 동안의 표준화된 숙련도, 속도, 강도의 노동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손상을 지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

3) 김도현. (2020). *장애학 함께 읽기*. 서울: 그린비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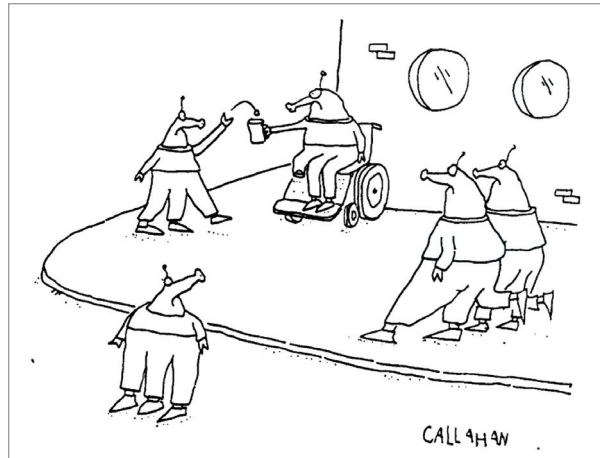
4) 조주희, 박문석(2020)에서 일부 수정 및 재작성하였음.

을 팔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들은 사회에서 ‘비생산적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갔다.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의존성에 대한 해법을 의료화에서 찾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수용 시설의 한 형태인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 아동의 치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데 미래의 복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올바른 투자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장애는 사회가 표준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범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고 ‘고쳐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치료되기 전에는 불필요한 인간이라는 메시지는 손상으로 인한 모든 ‘차이’를 ‘비정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존 칼라한(John Callahan)은 사지마비를 가진 남자 만화가로 장애 차별적인 사회를 고발하는 그림을 주로 그렸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는 다리가 3개인 사람은 ‘정상’이고 2개인 사람은 ‘비정상’으로 묘사되는데, 장애는 사회가 가진 각기 다른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표준에 관한 기준과 정상에 관한 문화적 기대는 사회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장애에 관한 정의는 객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⁵⁾



존 칼라한의 만화
출처: John Callahan(1990)⁶⁾

- 5) Barnes, C., Oliver, M., & Barton, L. (2002). *Disability studies today*. Cambridge, UK: Polity Press.
- 6) Callahan, J. (1990). *Do not disturb any further*. New York: Morrow.

장애의 문화적 구성

우리는 장애를 대개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 손상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서양의 의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객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장애에 관한 인식이 사회들 간에 차이가 있으며, 문화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는 증거들이 다양한 종족 사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르네오 중부 푸난바족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거나 비가시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손상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입에 담을 수 없거나 숨겨야만 하는 무엇이 아니다. 푸난바족은 서구사회에서 중요시하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또한 중요시한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몫을 수행하며 사회에 속해 공동체의 일원

으로 살아간다.

또 다른 예로 케냐 마사이족은 장애인을 ‘어색하고 느리며 힘들게 걷는다.’는 의미의 ‘도마뱀’이라는 용어로 일컫는다. 쉽게 걸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몸에 손상을 가진 아이는 ‘불운을 지닌 아이’를 뜻하는 ‘앵고키(engoki)’라는 용어로 일컫는다. 마사이족에게 손상은 신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조건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둘러싼 사람들이 대개 가지게 되는 “왜 나에게 장애가 생겼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왜 장애가 생기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공동체에 던진다. 다시 말해서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찾고자 한다.

장애의 타자화⁷⁾

우리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터와 사회적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개입하며 그들을 배제한다. 아래의 내러티브는 대부분의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대개 신체적 손상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회에 의해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낙인화란 장애의 실체라기보다는 장애로 인해 생겨나는 일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사람이 가진 신체적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가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에 덧붙여진 두려움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은 장애인의 삶이 비극적일 것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압박에 그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7) <조주희. (2021). 장애의 사회문화적 고찰: 여성장애인의 장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적 분석. 교육인류학연구, 24(1), .97-128>에서 일부 수정 및 재작성하였음.

“사람들은 네가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나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고, 그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픔 속에서 성장하면서 찾게 되는 삶의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조주희 2021, 120)”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매우 다양한데, 그것은 ‘불쌍하다’ 또는 ‘의존적이다’와 같이 많은 부분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는 대개 고통스러운 무언가로 상징화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고 규정되고 이들은 ‘정상인’과 구별지어진다. 장애를 제대로 보여 주는 재현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공

정적이지 않은 것이 어찌면 당연한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장애인은 언제나 타자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장애인은 장애를 보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해 거부감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장애를 정상적인 차이로 이해하고, 이들 집단의 가치를 소수 문화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이 가진 차이의 경험에서 오는 다른 종류의 관점은 우리 사회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개인적인 불운을 겪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애의 가치를 이해하는 비장애인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의식적으로 장애의 다양성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양성으로서의 장애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이해⁸⁾

교육학 분야에서 장애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장애 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가절하되는 가치인 장애로 인한 차이, 의존성, 수동성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장애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장애인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과 함께 탄생했으며 장애인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문화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⁹⁾

교육사회학자들은 학교교육에서 발견되는 장애 지식에 관한 불가시성(invisibility)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삽화에 대한 비판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미지를 통해 전달

8) <조주희. (2021). 2015 개정 사회과 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사회문화적 이해. 열린교육연구, 29(2), 315-344>의 2장을 수정 및 재작성하였음.

9) Oliver, M. (2009). *The politics of disablement*. London: Macmillan Education.

되는 지식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은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된 지식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지배 구조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문화 그리고 비주류를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사회가 가진 정상성 체계모니는 정상적인 몸과 엘리트 문화의 의미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된다.¹⁰⁾ 그리고 이러한 정상성 체계모니는 장애에 대한 환상과 신비감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타자화에 이바지한다.¹¹⁾ 시각적인 이미지에 관해 비판적으로 탐구한 수전 손태그(Susan Sontag)¹²⁾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유쾌하게 즐기고 있는 사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을 본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불행하리라고 상상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사진은 우리에게 현실을 가리는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무엇이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

10) Darke, P. (2003). Now I know why disability art is growing in the River Lethe (with thanks to Pierre Bourdieu). In Riddell, S., & Watson, N. (Eds.), *Disability, Culture and Identity* (1st ed., pp. 131-142). London: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847634>

11) 조주희, 박문석. (2019).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교과서 분석. *교육과학연구*, 50(4), 301-329.

12) Sontag, S. (2011). *On photography*. NY: Macmillan.

해 알려 주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본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전달하는 지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이앤 아버스, <무제 6 Untitled 6>, 1970-71

출처: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¹³⁾

13)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265087>

차이로서의 장애

장애인이 가진 차이는 그들 자신에게는 신기하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관점과 지식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¹⁴⁾ 그러나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다른 삶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온정의 대상이 아니라 차이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신경학자였던 올리버 섉스(Oliver Sacks)는 사회가 ‘정상’으로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차이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관한 글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섉스는 자폐증을 가진 ‘자연주의자 화가’ 호세(José)와 같은 인물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라는 안타까운 의문을 던진다. 호세는 한 번 본 그림을 정확하게 재현해 내는 능력으로 인해 ‘인간 복사기’로 불렸다. 그러나 섉스는 그가 단순히 이미지를 대상으로 옮겨 그리려는 것을 넘어 거기에 자신만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창적인 그림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

14) Wendell, S. (1966). *Rejected Body*. NY: Routledge.



호세, <카누를 타는 사람>
출처: Oliver Sacks(2015)¹⁵⁾

아래의 그림은 호세가 위의 사진을 보고 옮긴 것인데 원래의 이미지에 없는 극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배

15) Oliver Sacks. (2015).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NY: Simon & Schuster.

를 타고 있는 인물들은 호세에 의해 무엇인가를 하는 능동적인 인물들로 그려진 것으로 그만의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색스는 이것이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립되어 살아갈 수 있으나, 동시에 독창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 한다. 색스는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규정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인간이 가진 차이로 바라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정상’에서 벗어나는 차이가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차이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지는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한국에서 태어나 25세에 ADHD 진단을 받은 여성인 정지음은 스트라테라(Strattera)와 콘서트(Concerta)라는 약물치료를 받게 되면서 현실감이 생기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된 반면, 딴 생각들이 차단되어 공상에서 오던 즐거움과 재미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한다.¹⁶⁾ 그녀의 경험은 장애를 단순히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상적 차이로 규정하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사고방식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잘 드러내 준다.

16) 정지음. (2021). *젊은 ADHD의 슬픔*. 서울: 민음사.



나가며: 다문화 교육과 장애

장애로 인한 차이를 가치 있게 바라보는 문화 다양성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에 어떤 함의를 주게 되는 것일까? 장애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장애로 인한 차이를 없애는 결정을 올바르다고 여긴다. 반면에 장애를 차이로써 가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인간의 기능적인 불완전함을 가치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인 한계와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삶이 언제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가진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 루게릭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을 배우지 못하고 매일 종일토록 블록을 쌓는 재활 교육만 받

있다면 그가 가진 차이는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다.¹⁷⁾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지식과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비장애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기까지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다문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17) 조주희, 박문석. (2020).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획일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법이다. 짧은 외국 생활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사실이다. 외국의 멋진 해변에 봄비는 사람들의 패션도 가지각색이지만 그 수영복의 개성만큼이나 그들의 몸매도 다양했다. 늘씬한 사람들(여성이든 남성이든)만 몸매를 드러내고 해변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같으면 민망하다고 생각해 해변에서도 뽁뽁 싸매고 있을 몸매들이 거기에 서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우리 직장의 회식 자리로 시선을 옮겨 보자. 그 자리에 가면 이미 음식은 누군가에 의해 일괄적으로 주문돼 상에 올려져 있다. 시간을 절약 하려는 차원도 있겠지만 선택의 다양성을 꺼리는 문화도 한몫한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회식 자리가 아니라면 어떤가? 교수가 김치찌개를 주문한다. 대학원생도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라고 이어받는다. 간혹 어떤 친구는 메뉴판을 한참 뒤적이다가 허무하게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외친다(요즘은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다). 버거나 오믈렛도 자신의 취향대로 재료를 선택해 맞춤형으로 먹는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하기 힘든 주문법이다. 내 돈을 내고 사 먹는데 ‘아무거나 달라.’니.”

분명히 우리 문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풍토가 아니다.²⁾ 한마디로 우리는 획일화된 가치가 지배적인 사회의 일원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이러한 우리 문화의 특성을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
- 1) 동아시아와 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에 관한 탁월한 연구 요약으로는 <리처드 니스벳. (2004).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최인철 옮김). 파주: 김영사. (원서 출판 2003)> 참조.
 - 2) 장대익 등. (2017).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가치 다양성 증진 정책 연구* (보고서 번호: 2017-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인간 본성, 보편성, 그리고 본질주의³⁾

모든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고통의 원인에
게서 멀어지려는 동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런 인간들은 생존하기 힘
들고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즉, 고통 감수 능력은 무릇 인
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인간은 (물리적)
고통을 가르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다. 그것은 그저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타고난 성향에 일단 ‘본성(nature)’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본
성이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진화된 심리 성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성을 이렇게 규정하면 금방 문제가 생기는 듯하다. 물리
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애슐린 블로커
(Ashlyn Blocker, 24세, 미국)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물리적 고통
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무
척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불리는 이 희귀 질

3) 인간 본성 개념과 진화론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더 상세한 논변을 위해서는 <장대익. (2018).
인간 본성은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스펙트럼 16호> 참조.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유아기에 감염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북파키스탄 지역의 세 가족을 찾아내었고, 애슬린과 그들의 SCN9A라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의 11개 가족 158명 환자들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9번 염색체에 위치한 PRDM12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선천성 무통각증이 발현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⁴⁾

만일 인간 본성을 모든 인간 구성원이, 그리고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라고 정의한다면, 규정상 고통 감수 능력조차도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 능력(language faculty)은 어떨까? 이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어느 언어권이든 언어 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 능력의 핵심을 무엇(구문론, 의미론, 음운론, 화용론)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그런 언어 장애가 본질적 손상인지를 따져 봐야 하겠지만, 늑대 인간의 경우처럼 특정 기간 동안에 아예 인간의 언어적 환경에 놓이지 못한 이들이 결국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4) Chen, Y. C., et al. (2015). Transcriptional regulator PRDM12 is essential for human pain perception. *Nature Genetics*, 47(7), 803-8. 고통의 진화적 기능에 관해서는 <장대익. (2017b). *울트라 소셜*. 서울: 휴머니스트> 6장 참조.

못한다는 증거로부터 우리는 언어 능력 또한 인간의 본성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통 감수 능력과 언어 능력 마저도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면 대체 어떤 능력(속성)들이 본질적 속성이 될 수 있겠는가?

다윈의 진화론은 플라톤 이후로 존재론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본질주의(essentialism)와 반본질주의(anti-essentialism) 사이의 깊은 골에도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 본질주의는 자연 세계가 어떤 구분된 본질들로 정확하게 구획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금과 구리가 각각의 고유한 본질적 속성들에 의해서 뚜렷하게 구분되듯이,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이 각각의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모든 생명체를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형상의 불완전한 모방쯤으로 본 플라톤으로부터 생물종이 신에 의해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매우 깊다.⁵⁾

하지만 진화론은 그러한 부류의 본질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듯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

5) 장대익. (2017a). *다윈의 정원*. 서울: 바다출판사.

서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조건들이 만족될 때이다.⁶⁾ 어떤 개체군 내의 유기체들은 다양하다(변이 조건). 어떤 변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부과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개체들보다 더 적합할 것이다(차별적 적합도 조건). 그러면, 이 변이들은 다른 변이들에 비해 번식기까지 더 많이 생존하거나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만일 생존과 번식에 차이를 낳는 그런 특성들이 부분적으로 대물림이 가능하면(대물림 조건), 다음 세대의 개체군에서는 그런 이로운 형질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 개체군 내의 형질 분포는 변할 것이다.

이처럼 변이 조건 또는 변이성(variability)은 자연선택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즉, 변이는 더 이상 중심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중심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개체군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질적이어야 생명의 진화가 가능하다.

진화생물학자 마이어(E. Mayr)는 이런 의미에서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 해묵은 본질주의가 ‘개체군 사상(population thinking)’이라는 비본질주의적 견해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⁷⁾ 생물철학자 헐(D. Hull)은 이

6) 찰스 다윈. (2019). *종의 기원* (장대익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원서출판 1859); Lewontin, R. (1970). The units of selection.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1, 1-18.

7) Mayr, E. (1982).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개체군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생물종이 더 이상 자연종(natural kind)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금(金)의 경우처럼 자연종의 구성원들은 본질적 속성들(essential properties)을 서로 공유하는 데 비해, 생물종의 구성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공유되는 본질(essence)이 없다.⁸⁾

8) Hull, D. L. (1976). Are Species Really Individuals? *Systematic Zoology*, 25, 174-191.

■ 딸기 치즈 케이크와 BTS

하지만 인간 본성을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본질’로 꼭 규정해야 하는가? 진화론이 본질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혈의 주장에는 기꺼이 동의할 수 있다. 유형론적 사고(typological thinking)와 같은 본질주의를 타파한 것은 다윈의 혁명적 업적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물 종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점이 틀렸기에 인간 본성 개념도 포기해야 한다.”는 혈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인간 본성이 인간 구성원 모두에게 꼭 보편적(universal)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과학철학자 머서리(E. Machery)는 인간 본성을 ‘인간 종 진화의 결과로서 인간들이 가지는 성향적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본질과 본성을 분리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형질이 본성이 되기 위해 꼭 보편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형적(typical)이기만 하면 된다.⁹⁾

- 9) Machery, E. (2008). A Plea for Human Nature. *Philosophical Psychology*, 21, 321-30; Machery, E. (2018). Doubling Down on the Nomological Notion of Human Nature. In E.Hannon & T. Lewens (Eds.) *Why we disagree about human nature* (pp. 18-3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향적 속성’의 뜻이다. ‘물에 잘 녹는’이라는 속성은 ‘등근’과 같은 속성과 다르다. 전자는 성향적 속성이지만 후자는 비성향적 속성이다. 성향을 택하면 보편성을 버릴 수 있다. 잠재력은 있는데 특정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발휘되지 않는 속성(성향적 속성)들이 진화했다면, 그런 형질들은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보편적) 형질일 수 없고 오히려 기껏해야 전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TS에 대한 열광 같은 현상은 보편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우선, ‘BTS를 좋아함’과 같은 속성은 진화의 산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BTS를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의 진화된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BTS를 좋아함’은 인간 본성이 되는가?

물론 BTS를 좋아하게끔 우리의 마음이 진화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미각이 딸기 치즈 케이크를 좋아하게끔 진화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딸기 치즈 케이크에 대한 선호는 수렵 채집기에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을 때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미각이 현대의 음식 환경에 반응하는 경우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자 핑커가 <빈 서판>에서 힘주어 말하지 않았는

가? 딸기 치즈 케이크를 좋아하는 습성(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은 마음의 적응(adaptation)이 아니라 부산물(byproduct)이라고.¹⁰⁾

여기서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계산주의 이론과 행동생태학이 결합하여 생겨난 학문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적응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유형의 ‘적응 문제’에 직면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설계된 마음을 가진 개체만이 진화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적응 문제(예를 들어, 적절한 음식 찾기, 짝을 찾거나 지키기, 상대방의 마음 읽기, 동맹 만들기 등)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대목이다.¹¹⁾ 이는 마치 우리의 신체가 적응적인 여러 기관(눈, 다리, 심장 등)으로 구성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하나의 적응적인 기관이라는 뜻이다. 진화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정신 기관(mental organ)’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 스티븐 핑커. (2007).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김한영 옮김). 파주: 동녘사이언스. (원서출판 1997).

11) 데이비드 버스. (2013). *진화심리학* (이충호 옮김).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원서출판 2012).

인간 마음의 진화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옹호이다. 예컨대 ‘본성 대 양육’ 논쟁을 다시 점화한 핑커는 <빈 서판>에서 17세기의 철학자 로크 이후로 오늘날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인간 본성에 관한 이른바 ‘백지’ 이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인지 신경학, 행동유전학, 진화심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반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빈 서판’, ‘고상한 야만인’,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세 가지 독단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서 ‘빈 서판(the blank slate)’의 의미는 마음은 타고난 특성이 없다는 뜻이고, ‘고상한 야만인’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 속에서 타락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계 속의 유령’은 우리 각자는 생물학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가 이 세 가지 독단을 비판하는 요지는 이렇다. 우선, 지난 반세기 동안 ‘행동주의(behaviorism)’-인간의 마음을 블랙박스로 상정하고 자극과 반응의 관계만으로 이해하려던 사조-는 과학의 전 분야에서 축출되었다. 둘째, 인간의 심성도 수렵 채집기의 진화적 적응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일 뿐, 본래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수많은 증거들

에 의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에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뇌과학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뇌의 작용과 정신 활동을 분리하여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말한다¹²⁾.

인간 본성 개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핑커는 인간의 언어, 추론, 수리, 짝짓기 능력 등은 수렵 채집기에 우리를 옥죄었던 적응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자연선택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계된 적응들이고, 종교·예술·창의성·유머 등은 이런 적응들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의 우리가 찬란한 현대 문명 속에 있지만 사실은 수렵 채집기에 잘 적응된 몸과 마음을 장착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진화심리학적 인간관이 기존의 인간 본성론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이야기한다.

만일 거의 모든 인류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그런 선호가 진화의 산물(적응이든 부산물이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선호를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BTS의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이상하지 않은) 생각은 BTS의 노래와 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행위들

12) 스티븐 핑커. (2004). *빈 서판* (김한영 옮김). 서울: 사이언스북스. (원서출판 2002).

이 인간의 진화된 근본적 욕망(동기) 중 무엇을 어떻게 건드렸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이끈다.

인간 본성과 다양성

그런데 진화심리학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반론 중 하나는 인간 본성 개념이 문화적 차이 및 인간의 개성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즉, 인간의 개성과 문화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본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참이 아니다. 다양성은 본성의 반대가 아니라 본성이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문화적 느슨함/엄격함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연구는 본성과 다양성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¹³⁾

싱가포르에 집을 반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왜냐하면 발각되었을 때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2년간 수감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나 나올 만한 이 법규는, 매일 집을 찢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13) 이 절의 이하 내용은 <장대익. (2021.06.08). 문화적으로 느슨한 사회(장대익의 진화 칼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6080300065>>을 증보함.

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이다. 껌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인구밀도가 극도로 높은 싱가포르에서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사방에 붙어 있던 껌 딱지 때문에 공무원들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미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기에 충분한 위협이었다고 한다. 이에 싱가포르 당국은 1992년에 문제의 근원이라고 여긴 껌을 불허하기에 이른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납득되는 설명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적 규범 중에서도 외국인의 관점으로는 이상한 것들이 있다. 수년 전에 외국 언론의 해외 토픽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소개된 적이 있다. ‘여기 아침 7시 반부터 0교시를 시작으로 학교 수업을 5시까지 듣고, 편의점에서 저녁을 때우고는 곧바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또 듣다가 밤 12시에 귀가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 이게 믿어지는가?’ 하는 식이었다. 동서양 학습 전통을 탐구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밤 12시에 대치동 학원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보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양 인식되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 “우리 애는 학원 뽕뽕이를 돌지 않는다.”는 당당함은 조

롱받기 십상이다. 자기 자녀를 소위 한국의 명문대에 입학시키겠다는 부모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치동의 규칙을 따르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는 사실을 곧 깨달을 것이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학부모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사회적 규범이지만, 입시 지상주의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이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이상한 풍경 몇 개를 추가해 보자. 아직까지도 명절에 우리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모한다. 평상시에 그렇게 특별히 어른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하지만 이때만 되면 고향에 찾아간다(중국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신기한 것은 더 이어진다. 여성의 관점으로, 아니 제3자의 눈으로 명절의 노동 풍경을 보자. 여성들은 부엌에서 각종 음식과 과일을 조달하고 남성들은 그것을 먹으며 텔레비전 앞에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명절의 성별 분업은 거의 자동이다. 물론 이제 적지 않은 남성들이 이 상황을 가시방석처럼 느끼긴 하겠으나, 오늘 하루만은 그냥 이대로 가길 내심 바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은 진단명이 되었고 <82년생 김지영>은 베스트셀

려가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매 명절의 승자는 남성이 아니다. 최후에 웃는 것은 전통 유교의 규범이다.

유교적 규범의 영향력은 이 땅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지금도 막강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이라면 상대방의 나이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한다. 상대방의 고향과 출신 학교에도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이른바 호구조사는 관계 시작의 필수 관문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우리는 자신보다 어린 상대를 하대하는 행위를 상대적으로 용인해 주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대체 사회적 규범의 구속력은 왜 이렇게 문화마다 차이가 날까? 왜 북미와 유럽 문화에서는 사회의 규범이 느슨하고,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엄격할까? 왜 어디는 동성결혼이나 마리아나까지도 합법이고, 다른 곳에서는 금기시하는가? 문화적 엄격함(또는 느슨함)이 무엇 때문에 진화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문화적 엄격함의 차이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생태적 위협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집단일수록 사회적 규범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여기에서 일컫는 생태적 위협에는 전쟁, 자연재해, 전

염병, 높은 인구밀도 등이 포함된다. 이런 위협에 자주 노출되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합심하고 협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엄격한 사회 규범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규범을 어긴 이들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다. 즉, 고난이 많은 집단일수록 엄격한 규범을 만들고 따르는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일단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이 우리 사회의 획일성을 설명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인구밀도, 인간 본성, 그리고 다양성

인구밀도도 문화의 엄격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¹⁴⁾은 경제 지표와 복지 정책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생애사(life history)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짝짓기를 통해 자식을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 청년이 되면 또 짝을 만나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똑같은 생애사를 겪는다. 그런데 모든 생물은 나름의 생애사가 있다. 가령, 개구리는 한 번에 상당히 많은 알을 낳고, 그 알이 올챙이로 자란 후 성체 개구리가 되어 또 많은 알을 낳는 식의 생애사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어떤가? 동물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생애사는 다른 영장류(그리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14) 통계청의 최근 발표(2019년 2월 27일)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2017년(35만7,800명) 대비 8.6퍼센트(3만900명) 감소했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첫째, 영유아기가 매우 길다. 둘째, 상대적으로 오래 산다는 점이다. 셋째, 다른 동물들에 비해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일찍 낳느냐’와 ‘얼마나 많이 낳느냐’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종간에 차이가 있는데 가령 설치류는 이른 나이에 출산하며, 한 번에 많이 낳는다. 그에 비해 코끼리와 오랑우탄 같은 큰 동물들은 1년에 한 번, 심지어는 5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종 내에서도 개체 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 ‘빠른 생애사 전략(fast strategy)’을 취한 개체는 상대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에 신경을 덜 쓴다. 그에 비해 ‘느린 생애사 전략’을 택한 개체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고 양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여기에서 ‘생애사 전략(life history strategy)’이란 ‘언제 번식하는 것이 좋을까’, ‘얼마나 낳으면 좋을까’, ‘언제까지 살면 좋을까’와 같은 생애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 전략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충돌한다. ‘성장을 더 할 것이냐’, ‘생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것이냐’ 아니면 ‘번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것이냐’에 대한 의사 결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결국 이것이 상충과 균형(trade off)을 이루어 어떤 개체는 특정 환경에서 빨리 많은 아기를 낳는 쪽으로, 다른 개

체는 같은 환경에서도 아기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갖는 쪽으로 행동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출산은 ‘성장-출산-양육’이라는 생애 단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주어진 환경에 맞춰 어떠한 배분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 효율성에 차이가 생긴다. 가령 인구밀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선부른 출산은 비효율적 의사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손이 번영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는 출산을 미루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즉, 출산 대신 자신의 성장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애사 이론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낄 때 출산을 미루거나 적게 하는 저출산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적응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경쟁적이고, 불안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원을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는 양적인 분산투자를 한다. 그리고 성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전략을 발달시킨다. 반대로 경쟁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원을 확

실한 곳에 집중투자하는 질적인 투자를 하고 오랜 노력을 기울여 목적을 달성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발달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경에 민감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남는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경쟁적인가? 아니,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이라고 지각(perceive)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지각하는가?

진화심리학자 승(Sng, O.) 등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을 경우 사람들은 느린 생애사 전략가가 된다.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의 국민일수록 성적인 엄격성이 높는데, 다시 말해 아기를 낳을 가능성을 만드는 짝짓기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일수록 기대 수명이 높다. 즉, 출산에 투자해 자녀를 빨리, 많이 낳고 일찍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오래 사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유치원 등록률도 높다. 또 다른 번식보다는 이미 출산한 자녀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인구 고밀도 국민들의 출산력은 상대적

으로 더 낮다.¹⁵⁾

다시 말해, 내 주변이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감지하면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성장해 경쟁력을 길러야겠다.’는 판단 회로가 작동해 출산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객관적 환경이 어떠한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지각을 통해 적응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니까. 인구밀도가 높으면, 다시 말해서 사용 가능한 바람직한 자원에 대비해 경쟁자 수 혹은 인구의 수가 늘었다고 지각되면, 진화를 거쳐 형성된 인간 심리의 반응 체계가 작동한다. 경쟁이 심하다고 지각하는 순간 사회적 공격성과 공격의 욕구가 증가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목표와 가치가 획일화되기 시작한다. 즉,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점점 일원화되며 생각과 행동의 다양성은 감소한다.

15) Sng, O., Neuberger, S. L., Varnum, M. E., & Kenrick, D. T. (2017). The crowded life is a slow life: Population density and life history strate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5), 736-754; 고우림, 조영태, 차영재, 장대익. (2020). 한국 합계 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사회과학 탐론과 정책*, 13(2), 129-153. 고우림 외 (2020)은 한국의 인구밀도와 합계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 논문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과 가치 획일성은 주위 환경(인구 밀도)에 대한 인간의 오래된 마음이 적응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에 사는 한국인은 경쟁심이 강하고, 자식 낳기를 주저하며, 다양성을 참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성 자체가 인간 본성 개념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획일성 자체가 본성 개념을 추가로 옹호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문화적 느슨함/엄격함 자체는 일차적으로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일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본성은 환경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성을 선호하기도 한다.

물론 문화적으로 엄격한 사회는 기존 질서와 규범, 가령 남성 중심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양성평등에 대한 담론에 남성들이 때로 발끈하는 이유는 그 담론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생태적 위협만큼이나 심리적 위협은 엄격한 기존 사회 규범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세대 간 갈등의 핵심에는 소위 MZ 세대의 거침없는 언행을 위협으로 느끼는 이전 세대의 심리적 상태가 자리하고 있다.

전염병, 인간 본성, 그리고 다양성

높은 인구밀도 외에도 전염병 확산도 다양성 감소를 일으키는 변인이다.¹⁶⁾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6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미국 성인 9,654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로 미국 내 아시아인의 31%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경험했고, 26%는 누군가의 물리적 폭력이 두렵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더 흔해졌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히스패닉이나 백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보다 두 배나 높고, 흑인들에 대한 경우와 비교해서도 10% 정도 더 높은 수치이다. 미국 내 아시아인은 반 이상이 자신들을 향한 인종주의적 발언이 더 흔해졌다고 응답했다.¹⁷⁾

무릇 21세기 시민이라면 인종주의는 이미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16) 이 절의 이하 내용은 <장대익. (2021.04.13). 자연스러움과 올바름의 간극(장대익의 진화 칼럼).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4130300025#c2b>>을 수정한 것임.

17) 국승민. (2021.04.10). 미국 내 아시아인 혐오, 한국 내 중국인 혐오. 시사/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1>

한다. 20세기 내내 인종차별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오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가르치고, 사회에서는 인종 혐오 범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인종주의는 박멸되지 않은 채 인간 무의식의 세계를 끝없이 배회하고 있다. 마침내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덕택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팬데믹이 어떻게 인종주의의 부활을 이끌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전염병은 다른 질병과 뚜렷이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다. 그것은 병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심을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수렵 채집기부터 진화한 ‘자연스런’ 적응 기작(機作)이다. 감염자에 깊은 연민을 느껴 접촉한 이들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지 못했기에 우리 조상일 수 없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면역력이 있었던 운 좋은 사람들이거나 감염자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던 무심한 자들이었다. 반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친구를 떠올려보라. 연민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염병은 회피 심리를 이끌어 내는 특별 변수이다. 전염병이 우리 동네에 창궐하고 있다는 기사만 읽어도 우리는 감염자

만이 아니라 외국인, 노인, 심지어 비만인에게까지 혐오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자기 집단에 대한 충성심도 무의식적으로 올라가고 집단주의적 관념이 더 강력해진다. 이질성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부터 방심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 혐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용인될 수 있지.’라고 추론하기 딱 좋다. 이것은 오류이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해서 올바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로부터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심지어는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실들이 나열되어도 사실 명제만으로는 그것이 좋거나 올바르다와 같은 가치 명제를 따라 나오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과 가치와의 간극은 0과 1의 차이만큼 크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자연주의 오류’라고 부른다.

혐오에 대한 용인은 논리적 오류만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사회적 오류이기도 하다. 에너지 섭취 효율이 높은 기작은 근근이 먹고 살던 수렵 채집기에는 매우 적합한 특징이었지만, 고열량 음식이 널려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즉,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적의 무엇이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비만의 기작처럼 현재의 최악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수렵 채집기의 전염병 상황에서 잘 통했던 혐오 전략은 현대의 다인종 사회를 붕괴시킬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

SNS, 인간 본성, 그리고 다양성

실제로 미국 보수층의 주거지인 남부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구글 검색창에 ‘기후변화’를 치면 ‘기후변화는 거짓말’이 자동으로 생성될 확률이 높다. 반면 보스턴에 사는 하버드대학 학생이 같은 단어를 치면 ‘기후변화는 사실’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자동 생성될 것이다. 이제 동일한 검색 결과란 없다. 누구에겐 진리가 다른 이에겐 거짓으로 검색된다.¹⁸⁾

60

더 심각한 문제는 매사에 극단적 언행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극단적 내용을 담은 영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관대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마치 온라인 슈팅 게임(shooting game)에서는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진짜 전쟁터의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게임에 열광한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면 우

18) 알고리즘 시대의 탈진실과 디지털 양극화 문제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장대익. (2020). 알고리즘 시대의 공감의 반경: 추천 알고리즘은 어떻게 우리를 더 폐쇄적으로 만드는가? 문명과 경계, 3호, 17-42> 참조.

리 속의 극단(極端)은 꿈틀거리고, 우리는 훨씬 더 극단적인 부족주의자들로 돌변한다. 더 큰 자극은 (자기들끼리의) 더 진한 공감을 낳는다(더 넓은 공감이 아님에 주의하라).

공유 플랫폼은 나의 클릭을 우리의 분열로 이끄는 마력을 갖고 있다. 혹시 당신은 페이스북(이하, 페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지금까지 총 몇 번 정도 눌렀는가? 네트워크 과학에 따르면, 페북의 여기저기서 ‘좋아요’를 200번 정도 누르기만 했어도 페북 알고리즘은 당신의 실제 절친이나 연인보다 더 정확히 당신에 대해 안다. 300번 이상 눌렀다면 ‘그’는 심지어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 페북도 사용자의 과거 선호를 통해 미래의 반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개봉 화제작인 올롭스키(J. Orłowski) 감독의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는 구글, 페북, 트위터 등의 과거 주역들이 등장해 데이터 브로커가 된 자신의 발명품들에 대해 경고한다. 페북의 ‘좋아요’ 버튼 개발자는 “우리가 ‘좋아요’ 버튼을 만들 땐 세상에 긍정과 사랑을 퍼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오늘날의 10대가 ‘좋아요’를 덜 받아서 우울해 하거나 정치적 양극화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털어놓고, 핀터레스트(Pinterest)의 대표를 역임한 켄달(T. Kendall)은 SNS

가 지금처럼 사용자의 마음을 계속 갈취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두려워한다.

<소셜 딜레마>의 최고 메시지는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바로 당신이 상품’이라는 명제다.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들이 우리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SNS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선호 예측 모형을 엄청난 수준으로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측면은 분명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예측 모델이 과거의 언행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다.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성장한다. 매일매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 인생은 변하고 또 변한다. 우연은 삶의 필연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식의 추천 알고리즘을 작동시킨다면,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 우리에게서 과거와 단절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인류는 집단생활을 잘 하게끔 진화한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에 큰 공동체를 만들었고, 문명을 건설했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민감한 존

재가 되었다. 우리의 본능은 타인의 평판에 민감하고, 집단의 대세에 따르고자 하며,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길 갈망한다. 동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가 유사한 타인에게 훨씬 더 큰 호감을 느낀다. 200명 내외의 작은 무리 생활을 했던 수렵 채집기에는 이런 본능 자체가 이득이 되었겠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품어야 하는 대규모 사회에서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SNS 기술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의 클릭에 기반한 작금의 SNS 알고리즘은 기존의 편견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도전과 선택을 제약하여 결국 한 인간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해악을 가져다주기 쉽다. 이런 방식의 추천 알고리즘이 SNS의 수익 모델의 거의 전부라는 점이 딜레마의 본질이다. <소셜 딜레마>에서 ‘20명의 개발자가 20억 명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술’이라고 말한 어떤 개발자의 고백은 다소 과장이 섞여 있지만, 이 기술이 근본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에는 충분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없이 삶을 살 수 있을까? ‘디지털 아미쉬(Amish)’ 같은 길이 물론 있다. SNS나 영상 공유 플랫폼이 없던 시대처럼 다 절연하는 삶이다. 쉽지도 않고 지속하기도 힘들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디지

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삶이다. 플랫폼 소비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가령, 스마트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하루 사용 시간 제한하기, 간헐적 단식처럼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기 등의 방법도 효과가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추천해 주는 세상이 단지 하나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만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의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세상이 더 크고 중요한지는 그가 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길은 기술적 혁신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알고리즘은 과거만을 기반으로 편견을 부추기는 폐쇄 방식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끔 적절한 기회를 주는 열린 알고리즘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만일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연구와 깊은 융합이 일어난다면 기술적 혁신의 길은 기업과 고객 모두를 웃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계에서 쓰고 있다. 그만큼 중요해졌고 그만큼 더 위험해졌다. 양극화의 위험은 더 커졌고 비판적 중도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내전 중이다. 그러나 좀 더 평온한 오프라인 실세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인간 본성과 다양성의 미래

인간은 진화의 역사를 가진 동물이다. 여기에서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묻는다면 그 진화 역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진화의 역사는 중력과 같은 것이다. 느끼긴 어렵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집단의 문화와 발달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생활사는 미세 조정과 같다. 마치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 하는 물체가 받는 마찰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력과 마찰력만 고려하면 되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세계가 밀려오고 있다. 중력을 거스를 만한 힘을 가진 신세계일지 모른다. 세계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알고리즘은 인간 본성에 또 한 번의 상처(위협)를 주고 바둑계를 홀연히 떠났다. 그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인간 본성의 전면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인공지능이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

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¹⁹⁾ 그때에도 우리는 인간 본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날에는 기계의 본성을 더 많이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동안 인간 본성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다른 특성들(가령 실수를 잘 하는 것)을 발굴하는 것으로 인류는 자존감을 유지하려 들 수도 있다. 그 때가 되면 인간 본성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다양성은 그 줄을 끊고 자유롭게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

19) Cha, Y., Baek, S., Ahn, G., Lee, H., Lee, B., & Jang, D. (2020). Compensating for the loss of human distinctiveness: The use of social creativity under Human-Machine comparis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3, 80-90.

조주희

서울대학교와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연구교수이다. 한국연구재단과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소수자(장애, 여성)와 교육 불평등에 관한 질적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장대익

카이스트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생물철학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학제 교육SI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인간본성 및 기술진화에 관해 연구 중이다.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다윈의 식탁』(2015), 『올트라 소셜』(2017) 등이 있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슬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판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창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아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요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호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다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꿰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한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16호

생활톤: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설아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Diversitas PDF 버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klet.do>



Diversitas

권호 18호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